



NEW BRAND

Alchimie Forever

지금 뷰티 마켓에 있어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코스메슈티컬과 천연 성분 화장품. 스위스에서 막 입성한 코스메틱 브랜드 알쉬미 포에버(Alchimie Forever)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그야말로 '핫'한 화장품이다. 유럽에 최초로 메디컬 스파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부부 피부과 전문의 루이지 폴라와 바바라 폴라가 만든 안티에이징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활용한 것이 특징. 이미 널리 알려진 항산화 성분인 녹차와 토마토, 포도씨 외에도 로즈메리, 블루베리 등의 다양한 식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페이스와 보디 제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아이템은 에이지 디파이닝 세럼. www.skinstore.co.kr에서 구입 가능. 에디터 | 김보선



알쉬미 포에버의 베스트 아이템인 다이오드 1+2 에이지 디파이닝 세럼. 15mlX2개 12만 9천원.

PHOTOGRAPHY: YOON TAE SOOK, KIM SOO HWAN

Two of the biggest keywords in the current beauty market are cosmeceutical and natural ingredients. The Swiss cosmetic brand Alchimie Forever satisfies both keywords and is becoming the new "hot" thing. It was developed by two renowned dermatologists, Dr. Luigi and Barbara Polla, who established the first medical spa in Europe. Both body and facial products have various antioxidants from natural ingredients such as green tea, grape seed, rosemary, tomato and blueberry to fight skin aging. One of their most popular products includes the following Diode 1 + 2 which adds firmness to your skin and controls age spots.



록에 화장품을 모두 다